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6년도 표어 ◎

교회, 백성의 위로자(사40:1)

◎ 행동지침 ◎

- 1. 세계 복음화
- 2. 교회 천국화
- 3. 문화 기독교화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 558-1106 팩스: (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왕을 위한 기도

(시편 20:1-9)

시편 20편은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왕을 위한 기도입니다. 시편 20편의 말씀은 '우리가' 라는 주어로 계속됩니다. 이것으로 보아 시편 20편은 예배의 성격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의 전후에는 '내가', '나의' 라는 일인칭 단수를 사용했지만 본 편에서는 '우리' 라는 일인칭 복수를 사용하므로 많은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함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 갑자기 '내가' 라는 말이 나옵니다. 시인은 자기에게 기름 부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이제 '내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1. 왕을 위한 기도

1-5절은 이스라엘의 왕을 위한 기도입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원하노라' 는 말이 6번 나옵니다.

'환난날에 여호와께 내게 응답하시기를 원하노라' (1절),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기를 원하노라' (1절).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기를 원하노라' (2절),

'네 모든 소제를 기억하시기를 원하노라' (3절),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4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5절).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 보다는 왕에게 직접 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기들의 왕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같은 형식으로 말할 것입니다.

이 시가 쓰여질 때의 환경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왕은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멀지 않은 거리에 그의 기도에 동참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지도자들이 있는 나라는 복 받은 나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시를 쓴 사람이 다윗이라면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기도로 인도했을 것이라는 추측은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네 모든 소제를 기억하시며 네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3절).

왕이 소제와 번제를 드린 것으로 보아 그는 매우 종교적인 인물입니다. 왕의 승리는 곧 나라의 영광이요, 왕의 환난은 온 백성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왕을 높이 드시고 성소로부터 도움을 내리시며 시온에서 불들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2. 승리의 확신

하나님께 기도한 왕은 승리를 확신합니다. 여기서 왕 자신 제사장 말하는 일인칭 단수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왕이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7절).

많은 사람들이 군사나 무기를 의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교회와 국가는 영육의 관계입니다. 영은 육을 위해 축원을 하고 복을 빌어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국가와 지도자를 위해 부단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도 하나님의 권능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한 것도 역시 하나님의 권능이었습니다. 기드온의 300명 군대가 미디안을 이긴 것도 소년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죽인 것도 모두 하나님의 권능으로 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간섭이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약 1:17)는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앞길이 열리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의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6절).

기도를 한 왕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주실 것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3. 회중의 연합 기도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8-9절).

마지막 이 말씀은 회중이 왕과 더불어 연합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백성과 지도자 사이에 불화가 생기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왕의 기도와 백성의 기도가 하나가 되면 그 나라는 복을 받게 됩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결국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경건한 지도자를 위해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왕의 승리 선언이 있을 후 전체 회중의 연합 기도가 우렁차게 터져 나옵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9절).

우리는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 특별히 경건한 지도자들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도자와 백성의 기도가 하나가 될 때 그 나라는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국가는 영육의 관계입니다. 영은 육을 위해 축원을 하고 복을 빌어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국가와 지도자를 위해 부단히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지도자와 백성이 함께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TV: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기독교방송) 매주 목 오후 5시 · K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 라디오: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을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기독교 TV (<http://www.cts.tv>)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감사함으로 보내는 설날 되도록

설날이 되는 오늘, 우리 민족은 제사 혹은 차례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야 할 날에 오히려 감사의 대상을 망각한 채 조상을 찾아 예배의 대상을 혼동하는 죄를 범하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다.

이런 민족적 범주를 회개하며 우리는 감사의 대상을 바로 알아 만복의 근원이시며 만유의 주재이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 창

조되었음을 깨달아 우리 일생의 목표가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맞춰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6년 설날을 맞은 오늘 주님의 존전에 모인 모든 성도들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은혜 누리도록 기도한다.

담임목사 특별심방 계속돼

1년 이상 병환 중이거나 연세 높은 성도를 대상으로

우리교회 이종윤 목사는 매년 초 1년 이상 병환 중이거나 혹은 연세가 높아 거동하기 불편하여 교회 출석을 못하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특별심방을 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며 천국 소망을 심어주고 있다.

이에 이종윤 목사는 올해도 변함없이 특별심방을 실시하고 있다. 심방을 받는 가정은 기도로 준비하고 가족이 빠짐없이 참석하도록 하며 같은 다락방 식구들도 심방받는 가족들을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한다.



▶ 2005년 특별심방 중...

북한 주민과 탈북자를 위한 서울 통곡기도대회 자원봉사자 계속 모집

2월28일(화)-3월1일(수) 영락교회에서 열려

신앙과 인권의 사각지대인 북한 주민과 탈북자를 위해 함께 회개하고 기도하는 KCC(북한 자유를 위한 한국교회 연합) 서울통곡기도대회가 2월28일부터 3월1일까지 이틀간 영락교회에서 열린다.

우리교회는 이 일을 위해 전화 봉사자 300명의 성도를 지원하게 된다. 이번 기도회에서 우리는 북한의 주민과 탈북자들의 절박한 인권상황을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고, 민족과 교회 그리고 목회자들이 침

묵하고 기도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하게 될 것이다. 북한 주민의 생존권을 확보하고 북한 땅과 그 주민이 마침내 복음으로 자유를 얻으며 한 민족이 복음 안에서 평화롭게 통일되도록 기도하는 민족 통일과 복음화를 위한 기도의 운동이 될 이번 기도회에 많은 성도들의 참여를 바라며 봉사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사무국으로 문의 하기 바란다.

전교인 성경일독 이상 권장

성경통독 카드 활용토록

우리교회는 그간 생명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 개인이 통독하고 이를 교구담당 교역자에게 보고 하도록 하여 시상하여왔다.

새해 들어 교회는 성경통독을 더욱 확대키로 하고 온 성도들이 성경을 쉽게 읽도록 하기 위하여 '성경통독 카드'를 제작 주부에 삽지로 넣었다.

앞으로 성도들은 성경통독 카드를 체크하며 성경

을 읽고 이를 교구담당 교역자에게 제출하여 교회에 알리도록 한다.

성경통독 카드가 더 필요한 성도들은 사무국에서 받아가면 된다.

모든 성도들이 성경읽기에 열심을 내어 일 년에 일독 이상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영광돌리도록 기도한다.

농어촌100교회운동 비전2020운동 계속 접수 중

급격한 도시화로 피폐해진 농어촌 교회가 자립하여 그 지역의 복음의 기초가 되도록 돕는 농어촌 100교회 운동과 2020년까지 민족의 75%를 복음화 하기 위해 군복무 중인 젊은이들을 전도하는 비전2020운동 후원자 접수가 계속되고 있다.

또 농촌을 복음화 하고, 자녀요 형제인 젊은이들을 복음의 길로 인도하는 비전2020운동에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후원하기 원하는 성도들은 사무국으로 접수하면 된다.

유년부 · 사랑부 2006년 임원 선출

유년부(부장: 오광환 집사는 지난주(1월22일) 임원 선거를 통해 2006년도 어린이 회담단을 다음과 같이 선출하였다. 또한 아래 학생들의 학부모는 유년부 자모회 당연직 회장으로 자모회를 구성하여 금년 한 해 동안 유년부 교사들과 함께 유년부 어린이들의 신앙성장을 위해 동역할 예정이다.

한편 사랑부도 다음과 같이 임원을 선출하였다.

<유년부 임원명단>

- 회장: 김보영(3학년) · 부회장: 안수진(3학년)
- 부회장: 주하민(2학년) · 부회장: 김동재(1학년)

<사랑부 임원명단>

- 회 장: 이종석 · 부 회 장: 조의철
- 전도부장: 김경림 · 음악부장: 박준우
- 봉사부장: 김자성

금주의 성구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이가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 있다 하거늘 그 낮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여제 일곱 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이가 살아 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요 4:49-53)

The royal official said, "Sir, come down before my child dies." Jesus replied, "You may go. Your son will live." The man took Jesus at his word and departed. While he was still on the way, his servants met him with the news that his boy was living. When he inquired as to the time when his son got better, they said to him, "The fever left him yesterday at the seventh hour." Then the father realized that this was the exact time at which Jesus had said to him, "Your son will live." So he and all his household believed. (John 4:49-53 [NIV])

장로가정탐방 - 조정식 장로가정

광야의 소리

오직 기도와 예배입니다

8기 장로이신 조정식 장로님은 86년 선천께서 소천하시기 직전에 남기신 유언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다. 첫째 예수님 잘 믿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둘째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여라. 셋째 세상 욕심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것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며 살아라.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 향한 중심이 오늘 까지도 마음에 살아 운동하는 귀한 은혜는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신앙의 유산이다.

장로님의 청년 시절, 첫 직장을 얻었을 때 어머니께서는 이사아서 41장 8-10절의 말씀을 읽어주시며, 택하시고 벗 되어 주시며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며 붙들여 주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것을 당부하셨다.

어머니는 첫 봉급은 하나님의 것이라 하여 교회에 바치고, 두 번째 봉급은 주의 종의 것이라 하여 목사님께, 세 번째 봉급은 부모님의 것. 그리고 네 번째 봉급은 네 몫이라 하여 장로님이 깊이 감명 받았었다.

올해로 86세 되시는 어머니는 오직 교회, 오직 기도, 오직 하나님 중심된 삶을 생활로 보이며 장로님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계신다.

장로님의 할머니도 아버지와 비슷한 유언을 남기셨다고 한다. 임종 예배를 집도하시는 목사님께 "제가 먼저 주님을 천국 가서 만나겠습니다."하고 기쁜 마음으로 눈을 감으시면 모습이 잊혀지지 않으신다고 한다.

조정식 장로님은 김영식 권사님과의 슬하에 남현, 현숙 남매를 두고 계시다.

조 장로님은 사랑하는 서울교회가 아니면 오늘의 자신은 있을 수 없었다고 고백하며 영적으로 지적으로 늘 새롭게 가르침을 받는 삶은 세상의 학교와 비교할 수 없고, 이종은 목사님을 통해 힘 있는 말씀을 공급받으며 청년의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으니 배우고 장성하게 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뿐이다.

안수집사로 교회를 섬길 때부터 선배 장로님들로부터 받은 교육도 그의 신앙 성장에는 빼놓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

곳을일을 마다 않고 손발을 걷어 부치시는 장로님들의 모습, 교회의 행정과 교인들을 살피는 일 등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던 선배들의 모습에 감동한 기억이 새롭다.

조장로님은 2006년에 목회자 신학세미나(학감)와 상조부 부장, 베들레헴 찬양대에 계시며, 내외가 함께 주일 2부 할렐루야 찬양대를 섬기고 있다.



설날 유감

전기집 장로(12교구)

오늘은 음력 설날이다. 우리 민족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데도 으레 조상에게 제사부터 지내고 출발한다.

내가 아는 어떤 이는 몇 대째 장손이라서 매달 한 번 꼴로 제사를 지내야 한다. 이것이 그에게는 큰 짐이 되어서 하루는 자기 외아들에게, "너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나 이민 가서 이런 굴레에서 벗어나 맘 편하게살라"고 실토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그 자신은 거기서 벗어날 용기가 없다.

이같이 억지로 드리는 조상 제사에도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인터넷으로도 제사를 지내고 어떤 통 큰 며느리는 일년 치 지낼 제사를 몽땅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지내기도 한다.

실제로, 죽은 조상이 와서 먹는단 말인가? 그 흔백이 산 사람과 교감속에 존재한단 말인가? 하기사 지혜롭다던 야텐사람들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단을 쌓고 위했던 것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이 우리 믿는 자들 처럼 그 어리석음을 금방 깨닫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이번 설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또는 습관적으로 또는 잘못된 지식 가운데 제사를 지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인가!

이런 허망한 것들로부터 해방시켜 참자유를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저 무지한 자들도 어서 허망한 것에서 놓임 받기를 기도한다.

만민에게 전도- 선교지에서 온 편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은준 강혜정 선교사(카자흐스탄)

하나님께서 저희 같이 미약한 자도 주의 종으로 사용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좋은 동역자와 후원자를 허락해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저희는 15일 저녁 11시에 알타타 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하룻밤을 알타타에서 지내고 다음날 오후 4시 차로 타라즈를 향해 출발하여 저녁 11시에 도착하였습니다.길 사정이 좋아져 7시간으로 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저희가 기거할 교회 터와 집은 아직 난방공사를 하고 있어서 한국선교사님 guest room에서 며칠을 지내고 지금은 이곳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눈으로 덮여있습니다. 영하10~20도를 오르내리는 추운 날씨이지만 주님의 불기둥이 저희를 따뜻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아침기도회와 저녁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앞으로 펼쳐질 사역을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십시오.

서울교회 은 성도님들,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은준 강혜정 이평화 올림

기도제목

1. 종교활동 허가증(레첸지아)을 발급받도록

2006년 4월중에 허가증을 받아야 전도와 설교가 가능하며 종교담당관리(장까라예바-카작인, 무슬림)의 마음을 움직여주시도록, 현재 비자는 2006.7.4까지 연장하였습니다.

2. 교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예배당, 여러 가지 성구 등을 갖추고 카작어로 찬양하고 설교할 수 있도록

3. 영혼구원을 위하여

이 도시의 35만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김그레고리(83세 고려인)-이웃에 사는 할아버지, 거의 매일 저희 교회에 옵니다. 지나(며느리), 지마(57세 고려인)-이웃에 사는 고

려인 쿠아스(35세)와 부인, 딸, 부모(우리에게 호감과 호기심이 있습니다. 2년전 이웃국가에서 이곳으로 이주한 가족)

4. 아들(평화)의 학교적응을 위해

현재 9학년 재학중, 현지인 학생들과 교사들이 한국과 너무 달라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천국시민 양성-고등부 수련회 후기

자신을 회개하는 성령 충만한 시간

한민(고 3)

저는 금년에 대입수험생이 되는 학생입니다. 저는 글을 잘 쓰지는 못 하지만, 부족하고 낮은 저를 통하여 이번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를 조금이나마 다른 친구들과 나눌수 있게 된 기회를 주신것에 감사드리고 또 지금도 살아계셔서 홀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렇게 펜을 듭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를 다녀와서 무엇보다 기도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과 통하는 대화이며, 하나님께서는 나의 소원을 더 확실하게 들어주실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는것 만큼 기도하고 믿는 것 만큼 열매를 맺는다." 이것은 이번 수련회의 말씀의 요지입니다.

아는 사람과 믿는 사람은 먼저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윤영국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저는 자신을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나... 나는 그들을 위하여 얼마만큼 기도 했나.

이번 고등부 수련회는 제가 다녀왔던 고등부수련

회중 제일 기도를 많이 한 수련회가 되었습니다.

수련회 프로그램 중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수련회에 온 학생들은 각양각색의 기도 제목, 즉 각각 자신의 미래를 위해, 목표를 위해, 가족을 위해 많은 기도제목들을 내놓았습니다.

그중 아빠가 쓰러지신 가운데 고등부 수련회에 참석했던 학생이 있었는데, 사실 그 학생의 아빠 이야기는 얼마전에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그런 급박하고 긴박한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수련회에 참석해 하나님께 기도로 드리고 매달릴 줄 아는 믿음이 있다는 것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중보기도를 통해, 서로를 위로해 주고, 서로를 이해할 줄 알며, 서로가 서로를 좀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고 3이라는 시간은 정신차려야할 시기,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라는 말을 합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 인생이 바뀐다는 말을 할 정도로 이 시기는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교회 수련회를 다녀오면 성령이 더 충만해지고 마음이 온화해 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에서 만난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욱 열심히 공부할것 입니다. 저 이외의 많은 학생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 더욱 도전받는 삶의 자세를 갖습니다.

앞으로 저는 열심히 중보 기도하며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더욱 더 최선을 다해 주어진 일을 하나씩 실천해나가고자 합니다.

서울교회 고등부 학생 모두가 더욱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천국시민 양성-청년부 수련회

청년부 겨울수련회에 오세요

청년부는 2월10일부터 11일까지 1박2일로 미리내 캠프에서 겨울수련회를 갖습니다.

2월10일 1층로비에 모여 교회버스를 이용하여 7시30분정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말씀과 찬양, 기도, 이종운 목사님의 특강, 눈썰매 타기 등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한 시간이 되고, 지체안에서 주님과 더욱 뜨거운 나눔과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 연합하는 시간이 될것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참석해 주십시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옛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서울교회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지난 청년부 겨울수련회에서...

동정

- 이종운 목사는 2월1일(수) 장로교 신학회 논문집 편집 위원회를 소집하고 2일(목)에는 부목사 청빙을 위한 면접을 한다.
- 주간 식당봉사: 안드레션교회(1월29일) 베드로선교회(2월 5일)
- 금주의 식사제공: 김재근 집사 안분선 권사 가정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30분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겨울성경학교 · 수련회 은혜 중 진행되도록
2. 임명받은 일꾼들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3. 옛 풍습에 끌려가지 말고 새사람으로 승리케 하소서
4. 하나님의 공의와 평가가 이 땅에 임하도록

■ 교회오시는 길

